

1 여름경품 2 키스타임 3 장터구경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펼쳐진 야간경마 레이스 모습. 야간경마 기간을 맞아 한국마사회는 '럭키씨머 페스티벌', '전광판 키스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마권 구매자 '럭키씨머 페스티벌' 참여 매주 토요일 '전광판 키스타임' 이벤트 저녁 9시30분까지 '직거래 장터' 소핑

“경마장에서 경품 타고 짜릿한 키스타임도 즐겨 보세요.”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야간경마를 맞아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야간 경마를 운영하며 경주시간(기존 오전 10시 45분~오후 6시)을 오후 2시~9시로 늦춘다. 올해 야간경마의 인기 포인트는 세 가

지로 소개할 수 있다. 우선 푸짐한 경품 이벤트 '야간경마 럭키씨머 페스티벌'이다. 서울경마 휴장기인 8월 첫째 주를 제외하고 매주 에어콘, TV, 공기정화기, 청소기 등 경품을 증정한다. 당일 3개 경주 이상 마권을 구매했다면 응모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후 출발하는 야간 경주를 3만 원 이상 구매했다면 100% 당첨되는 '럭키스크래치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행운권을 랜덤으로 발행한다. 커피,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모바일 쿠폰이 선물로 증정된다. 두 번째로는 각종 스포츠 경기장에서 응원전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전광판 키스타임 이벤트'다. 매주 토요일 저녁

경마공원 최초로 전광판 키스타임 이벤트를 실시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경주가 생중계되는 전광판 '비전127'을 통해 객석을 클로즈업하고, 개성 있는 포스트로 적극 참여한 고객에게 외식상품권 등 선물을 증정한다. 놀라운지 앞 그랜드 스탠드 고객들이 대상이며,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실시한다. 비전127은 가로 127.2m의 초대형 전광판으로 한국마사회가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입해 2016년 완성했다. 경마장 기준 세계 최대 크기이며, Full HD 초고화질을 자랑한다. 마지막으로 정문 근처 '꿈으로'에서 열리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저녁 늦게

까지 만날 수 있다. 직거래 장터는 한국마사회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농가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개최하는 오픈마켓이다. 야간경마 기간에는 기존보다 3시간 늦춰 저녁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7월에는 전북 무주군, 경기 여주시, 충남 보령시의 농가들이 옥수수, 고구마, 쌀 등을 소개한다. 8월에는 경북 상주시, 충북 영동군과 청주시, 충남 예산군 등에서 참가한 농가들이 사과, 감자, 한과, 표고버섯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야간 경마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마

11

2019년 7월 19·20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김재경·권소현, 장애아동 승마 보조 봉사

6월 재활힐링승마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재경과 권소현이 13일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과천시 재활힐링승마센터에서 실시한 장애아동 승마 강습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기승자 옆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사이드 워커를 담당했다. 김재경은 “장애아동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고, 권소현은 “참여 아동이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말과 교감하며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에 특별한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렛츠런파크 혹서기 휴장 등 8월 계획 발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이 8월 경마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혹서기 휴장하는 첫째 주인 8월 3일과 4일에는 경마를 시행하지 않고 제주와 부경 경주를 중계 발매한다. 둘째 주에는 렛츠런파크 부경이 휴장해 서울에서 경주를 더 많이 시행한다. 10일에는 서울 11개, 제주 6개 경주가 펼쳐지고, 11일에는 서울 경주만 15개가 발매한다. 셋째 주부터는 모든 렛츠런파크를 정상 운영하며, 토요일에는 서울 11개, 제주 5개, 일요일에는 서울 11개, 부경 6개가 발매된다.

박대홍 조교사, 역대 5번째 900승 달성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의 박대홍 조교사(60세, 18조)가 14일 제7경주에서 통산 900승을 달성했다. 서울과 부경을 합쳐 5번째다. 1997년 데뷔한 박대홍 조교사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다승 1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데뷔 이래 최고 승률 18.3%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개인 통산 최고 순위상금 38억여 원을 획득했다. 정용운 기자

2등급 국산마 1800m 최강자전... '불의고리' 4연승 도전

21일 '제9경주' 일간스포츠배 분석

경주마 '불의고리'가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21일 제 9경주로 일간스포츠배가 펼쳐진다. 총상금 2억 원이고 2등급 국산마들이 1800m 장거리 대결을 한다.

●불의고리(수, 4세, 한국, R78, 전승규 조교사, 승률 45.5%, 복승률 72.7%) 6월 스포츠조선배에서 데뷔 후 첫 대상

경주 우승과 함께 3연승을 이뤄냈다. 직전 경주 3번 모두 1700m 이상 장거리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유력한 우승 후보다. 전승규 조교사는 2017년 데뷔한 신예 조교사로 6월 한 달 동안 7승을 거두며 상승세다

●심장의고동(수, 3세, 한국, R46, 지용철 조교사, 승률 33.3%, 복승률 50.0%) 2012년 코리아더비 우승마 '지금이순간'의 자마로 올해 코리아더비에서 준우승했다. 데뷔 후 6번 출전에 5번을 3위 안에

들며, 부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까지 부담중량 중 최저인 53kg을 배정받은 것도 잊지않는다.

●샤크대장군(수, 4세, 한국, R74, 배후준 조교사, 승률 23.5%, 복승률 47.1%) 올해 출전한 모든 경주에서 3위 안에 오르는 상승세다. 특히 스포츠조선배에서 불의고리의 뒤를 이어 준우승했다. 배후준 조교사는 일간스포츠배를 2010년과 2016년 두 번 우승했다.

●초인매수, 4세, 한국, R77, 이관호 조교사, 승률 23.5%, 복승률 47.1%) 데뷔 후 17번 출전에 1번 빼고 모두 순위 상금을 획득했다. 2세마 시절 경기도지사배와 과천시장배 우승, 브리더스컵 준우승으로 슈퍼투키로 등극했다. 최정상급 씨수말 메니피의 자마로 혈통적 기대치가 높다.

●명품촉제수, 3세, 한국, R60, 김점오 조교사, 승률 33.3%, 복승률 44.4%) 어린 나이이지만 대상경주에 꾸준히 출전하며 실력을 키워오고 있다. 작년부터 6개의 대상경주에 출전해 모두 순위상금을 획득했고, 올해는 6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정용운 기자



축구팬 72% “리그 3연승 수원, 성남 썸이야” KBO 올스타전 ‘예측의 신’이 떴다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중간집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20일(토)과 21일(일)에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K리그) 6경기와 일본프로축구(J리그)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수원-성남(13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71.56%가 수원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팀의 무승부 예측은 19.56%로 나타났고, 원정팀 성남의 승리는 8.88%를 기록했다. 리그에서 3연승을 차지한 수원이 성남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이번 회차에서 토토팬들 역시 최근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은 행복한 7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일 제주전을 시작으로 인천, 상주를 차례로 격파하며 3연승에 성공했다. 현재 리그 6위(7승8무6패)에 위치한 수원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바쁘지만, 최근 기세만 보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반대로 리그 9위(5승6무10패) 성남은 최근 3연패를 당했다. 제주, 상주에게 2연승을 거두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리그 선두 전북을 만난 이후 연패의 늪에 빠졌다. 성남은 7일 전북전에서 1-3으로 패했고, 포항과 대구에게도 0-1로 경기를 내줬다. 이번 시즌 양 팀의 첫 맞대결이었던 3월 16일 경기에서는 성남이 수원을 상대로 2-1의 승리를 차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원이 강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연승을 거둬 최근 기세가 올라있는 만큼 승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한 판이다. 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리그 7위 포항은 74.23%를 얻어 이번 회차 K리그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동일하게 홈경기를 펼치는 울산 역시 69.40%를 득표해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포항과 상대하는 리그 최하위 인천의 투표율은 9.06%로 나타났다. 리그 2위 울산과 만나는 4위 강원은 10.8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이번 승무패 25회차는 오는 20일(토) 낮 12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경기결과를 예상하는 '예측의 신(神)'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경기는 오는 20일(토) 오후 6시에 창원 NC파크에서 펼쳐지는 2019 KBO 올스타전 드림 올스타-나눔 올스타전이며 '드림팀이 승리한다', '양 팀 득점 합이 15점 이상이다', '홈런이 5개 이상 나온다' 등 총 3가지 O,X 퀴즈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올스타전의 경우 삼성과 롯데, 두산, SK, KT가 포진한 드림 올스타와 KIA를 비롯해 한화, 키움, LG, NC가 함께 하는 나눔 올스타가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해의 경우 나눔 올스타가 10-6으로 승리했고, 호인고 유강남, 김하성 등이 모두 4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이번 2019 KBO리그 '예측의 신'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방문 후, 이번 이벤트 페이지 내에 자신의 예측을 답달로 달면 된다. 주어진 3가지의 O,X 퀴즈를 정확하게 예측한 3명의 스포츠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피자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스포츠토토 발매 수익금 일부는 장애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상환 재해 및 장애인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장애인 스포츠추진에 힘쓸 수 있도록 스포츠토토가 당신의 스포츠를 함께합니다.

불법스포츠토토 발견하면 1899-1119로 신고하세요

건강한 스포츠 문화를 해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는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캠페인과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불법 시장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실제로 만일 불법스포츠토토와 관련한 사이트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1899-1119)'로 발 빠르게 신고를 해야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현재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